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스투네이커의 해석

송하석

요약문: 이 글은 직설법 조건문에 대한 스투네이커의 의미론을 제시하고 응호한다.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스투네이커의 가능세계의 의미론은 표준적인 가능세계와 조건문에 대한 선택함수 의미론과 비교하여 직설법적 조건문을 제한하는 확률론적 관념으로 구성된다. 그에 의거해, 직설법적 조건문은 강한 전자조건을 갖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논리적 원리는 받아들여지지만, 이행 원리가 보편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은 허용된다. 그럼에도 이행원리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함으로써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직관을 잘 설명하는 이론임을 보인다. 또한 이 글은 스투네이커의 이론에 대하여 제기되는 아담스주의적 비판과 가비드 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스투네이커의 의미론과 지나치게 멋막이론이라는 비판을 답변함으로써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가장 받아들일 만한 이론임을 주장한다.

주요어: 직설법적 조건문, 논리적 원리, 이행 원리, 가비드 현상, 아담스 논리, 멋막이론.

+ 2009년 하계 논리학회에서 이 논문이 발표될 때 유익한 논평을 주신 노호진 선생님과 이 논문을 심사해주신 두 분의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를 드린다.
1. 들어가는 말

직설법적 조건문(Indicative conditionals)에 대한 철학적 논란은, 일상적으로 별 문제 없이 사용되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진리함수적 (truth-functional)이지 않으며, 따라서 외연적인 의미론(extensional semantics)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직설법적 조건문은 진리함수적인 절차적 조건문(material conditional)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쟁점은, 그것과 절차적 조건문 사이의 차이 혹은 관련성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결국 그것은 절차적 조건문과 구별되는 직설법적 조건문의 의미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이다. 직설법적 조건문은 진리조건을 갖는 명제를 표현하는가? 그렇다면 진리조건은 무엇인가? 또 만약 진리조건을 갖지 않는다면, 어떤 직설법적 조건문을 직설하게 주장할 주장조건은 무엇이고, 그것이 실패되었을 때, 그것을 수용할 만한 수용조건은 무엇인가?

직설법적 조건문이 진리함수적이지 않은 이유는 직설법적 조건문의 경우 그 전건과 후건 사이의 의미의 관련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어떤 직설법적 조건문의 전건과 후건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그 문장이 반드시 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전건이 거짓인 직설법적 조건문은 진리적 조건문과 달리 항상 참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 중 하나는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이면, 그 직설법적 조건문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직설법적 조건문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은 적어도 이 직관에 반해서는 안 된다.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또 하나의 직관적인 이해는 베넷(J. Bennett)이 저작자들이, “(…) 직설법적 조건문은 오직 그것의 전건
이 일일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간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하고, 수용가능하며, 주장할 가치가 있다. 1) 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직설법적 조건문의 전건이 일일 가능성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러한 직설법적 조건문을 주장하거나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가장 상식적인 이해 중 하나는, 전건이 참이라도 할 경우에 그러한 조건 하에서 후건이 참임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직설법적 조건문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정보나 지식에 전건의 내용을 부가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전체 정보에서 전건이 거짓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후건의 내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전건의 내용이 부가되어 생겨난 새로운 정보 체계에서 후건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직설법적 조건문의 주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전건이 거짓이라고 믿는 경우, 즉 전건이 우리의 전체 정보 체계와 정합적이지 않는 경우는 우리의 정보체계가 새롭게 조정되어 전건과 양립할 수 없다면, 그 조건적 주장은 부적절한 것이다. 그러므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설명력 있는 이론은 이러한 직관과도 양립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직설법적 조건문과 절로직 조건문의 가장 중요한 차이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절로직 합족의 역설의 원리이다. 즉 A로부터 절로직 조건문 (A → C)는 추론되지만, 직설법적 조건문 (A → C)는 추론되지 않고, 또 C로부터 절로직 조건문 (A → C)는 추론되지지만, 직설법적 조건문 (A → C)는 추론되지 않기 때문에, 직설법적 조건문과 절로직 조건문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유효하는 대표적인 철학자인 에딩턴(D. Edgington)은 홍미로운 예를 통해서 직설법적 조건문을 절로직 조건문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보인다. 2)

만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를 한다면 내 기도가 응답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이 논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 논증의 첫 번째 문장의 조건문을 절로적 조건문으로 해석하여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G \lor (P \rightarrow A) \rightarrow P / \therefore G\]

예정돈의 위 논증을 이렇게 형식화 할 수 있다면, 그 논증은 타당하게 된다. 결국 이 논증의 첫 번째 전제는 절로적 조건문으로 해석해서는 안되고, 따라서 직접법적 조건문과 직접적 조건문은 구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철학자들이 직접법적 조건문을 절로적 조건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직접법적 조건문이 절로적 조건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음에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져슨(F. Jackson)이 주장하는 것처럼, 직접법적 조건문은 절로적 조건문을 함축한다는 논란 없는 원리(uncontested principle)와, 역으로 절로적 조건문은 직접법적 조건문을 함축한다는 이행 원리(passage principle)가 성립한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들이 있다.3) 결국 직접법적 조건문을 절로적 조건문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실질 함축의 역설의 원리가 직접법적 조건문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실질 함축의 역설의 원리를 받아들여서 직접법적 조건문과 절로적 조건문이 다르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논란 없는 원리나 이행 원리 중 적어도 하나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ائم다는 것을 보이고, 나아가서 결교적 조건문은 구별되는 직접
법적 조건문의 의미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직접법적 조건문에 대한 의미론은 그 조건문이 진리조
건을 갖는 명제를 표현하는지, 진리조건을 갖는다면 그 진리조건은
무엇인지, 또 진리조건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의 주장조건과 수용조
건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러한 설명은 앞에서 지적한
직접법적 조건문에 대한 일상적인 관점과 부합해야 하며, 직접법적
조건문과 직접적 조건문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설명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직접법적 조건문에 대한 스톨레이커(R. Stalnaker)의 가능
세계 의미론이 위에서 지적한 관점과 일관되면서, 직접법적 조건문
과 관련된 논리적인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한
다. 그는 직접법적 조건문은 종교적 조건문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진리값을 갖는 명제를 표현하고, 논란 없는 원리는 설명하지만, 이
행 원리는 일반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글의 목
적은 스톨레이커의 직접법적 조건문에 대한 의미론을 소개하고, 그
에 대한 비판에 응답하여 그 이론을 응호하는 데 있다.

2. 스톨레이커의 가능세계 의미론

스トル레이커는 1968년의 논문, "조건문의 이론(A Theory of
Conditionals)"과 1975년의 논문, "직접법적 조건문(Indicative
Conditionals)"에서 직접법적 조건문에 대한 의미론을 제시한 후,
그에 대한 여러 비판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2005년 "조건적 명
제와 조건적 주장(Conditional Propositions and Conditional
Assertions)"을 발표한다. 그는 2005년의 논문에서, 자신의 조건문
에 대한 가능세계 의미론은 표준적인 가능세계와 조건문에 대한 선택함수(selection function) 의미론, 그리고 적절법적 조건문에만 적용되도록 선택함수를 화용론적으로 제한하는 화용론적 원리로 구성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선택함수란 토대가 되는 어떤 가능세계와 A라는 명제를 취해서, A가 참이면서 토대가 되는 가능세계와 가장 유사한 세계를 함수값으로 삼출하는 함수이다. 다시 말해서, 선택함수 f는 B라는 가능세계와 A라는 명제를 취해서 f(A, B)를 삼출하는 함수인데, 그 함수 값은 A가 참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B와 가장 유사한 세계이다. 이 선택함수를 이용해서 그는 적절법적 조건문에 대한 전이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A \rightarrow C)\text{는 }\beta\text{에서 참이라서 if } f(A, \beta)\text{에서 }C\text{가 참이다.}\]

그러나 토대가 되는 가능세계 \(\beta\)를 현실세계라고 하면, \((A \rightarrow C)\)가 현실세계에서 참일 조건은, A가 참이라는 것 이외에는 현실세계와 가장 유사한 세계에서 C가 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택함수에 의해서 선택된 세계는 전달이 참이 되는 세계이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적절법적 조건문에 대한 일상적인 직관과 부합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법적 조건문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에 대응하는 결과적 조건문이 참이라는 믿음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A \& \neg C)\)가 거짓이라는 정보만으로도 \((A \rightarrow C)\)의 참을 정당하게 주장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스트레니커의 선택함수 의미론은 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과 유사한 비판이 예장론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는데, 이는

\[\text{Stalnaker (2005), p. 10.}\]
선언에서 조건으로의 논증(disjunction to conditional)으로 알려진 것이다. 예제로는 스플레이커의 가능세계 의미론에 따르면,

\[(A \lor B), \neg A \quad / \quad B\]

는 타당한 논증임을 설명할 수 있지만, 

\[(A \lor B) / (\neg A \rightarrow B)\]

는 타당한 논증임을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스플레이커의 의미론에 따르면, 두 번째 논증이 타당하지 않은데, 이 이유는 현실세계에서 \(A\)가 참인 경우, 전체 \((A \lor B)\)는 참이지만 결론 \((\neg A \rightarrow B)\)은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는 "눈은 흰다"를 "B\)는 "건더기다"를 나타낸다면 \((A \lor B)\)는 참이지만 \((\neg A \rightarrow B)\)는 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스플레이커는 두 번째 논증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행 원리가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신이다. 그럼에도 두 번째 논증이 타당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설명하는 장치가 바로 선택함수 의미론에 대한 화용론적 해석이다. 스플레이커의 화용론적 원리로는 조건문을 변화하는 행위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원리에 따르면 하나의 주장은 어떤 맥락에서 발생함을 전제하고, 그 주장이 발생하는 맥락 집합은 화자와 청자가 자신들의 대화에서 관심을 갖고 논의하는 가능세계를 표상하는 것이다.  

---

그리고 그 멱함집합에 속하는 모든 가능성에서 참인 명제는 화자에 의해서 화용론적으로 참이라고 전제된다. 선택할수에 대한 스톤네이커의 화용론적 정리는 다음과 같다.

\[ A \text{가 멱함집합 } \delta \text{와 양립가능하다는 조건 하에서, } \beta \in \delta \text{라면 } f(A, \beta) \text{이다.} \]

\[ \delta(A) \text{는 멱함집합 } \delta \text{에서 조건적 가정 } A \text{가 이루어졌으므로써 초래되는 파생대의인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delta(A) = \{ f(A, \beta) | \beta \in \delta \} \]

주 \( \delta \)에서 \( A \)가 참일 가능성이 있고, 토대 멱함 \( \beta \)가 \( \delta \)의 원소일 때, 파생대의 \( \delta(A) \)는 \( A \)와 토대 멱함 \( \beta \)를 취해서 선택되는 선택함수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파생대의 집합은 토대 멱함 집합의 모든 가정을 보존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함수에 대한 화용론적 정리는 절로 적 조건문이 참이라는 사실만으로 직설법적 조건문이 참인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화자가 어떤 멱함 집합 \( \gamma \)에서 \( (A \land C) \)를 주장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 멱함집합 \( \gamma \)에서 화자는 \( (\neg A \land \neg C) \)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 (\neg A \lor C) \)와 \( (A \lor \neg C) \)가 가능한 선택지(\textit{live option})로 열어 놓을 것이다. 이제 \( \gamma \)를 토대로 하는 파생대의 \( \gamma(\neg A) \)를 생각해보자. \( \gamma(\neg A) \)는 \( \gamma \)의 모든 정보를 보존하기 때문에 \( \gamma(\neg A) \)에서 \( C \)는 주장될 수 있다. 결국 \( \gamma \)에서 "\( \neg A \land C \)이 다"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톤네이커는 "선택함수 의미론과 선택함수에 대한 화용론적 제한을 결합함으로써, 직설법적 조건문에 의해서 표현되는 명제는 절로적 조건문보다 더 강하다는 논체와 절로적 조건문의 수용이 그에 대응하는 직설법적 조

건문의 수용을 위한 충분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화해시킬 수 있\textsuperscript{7}다. 그러므로, 이것은 \textit{\sim(A \lor B)}와 같은 형식의 선언문이 어떤 맥락에서 수용된다면, 그 선언함수에 대한 화용론적 제한을 통해서 그에 대응하는 직설법적 조건문 \textit{(A \rightarrow B)}가 그 맥락결합에 속하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참이라는 것을 보증한다\textsuperscript{7})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textit{(A \lor C)}로부터 \textit{(A \rightarrow C)}로의 추론을 명제 사이의 함축이라는 의미의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발화행위와 관련된 화용론적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추론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는 않지만, 합리적 추론\textit{(reasonable inference)}이라고 주장한다.\textsuperscript{8)}

그리하여 스타일레이커의 의미론에 따르면, 직설법적 조건문은 질서적 조건문보다 강한 전리조건을 갖기 때문에 직설법적 조건문은 질서적 조건문을 함축한다는 논란 없는 원리는 성립하지만, 반대로 질서적 조건문이 직설법적 조건문을 함축한다는 이행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는 않다. 또한 스타일레이커의 의미론은, 이행의 원리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추론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3. 아담스 논제와 아담스주의자의 비판

스타일레이커의 의미론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아담스 논제와 관련된 것이다. 아담스 논제란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조건부 확률값과 같다다는 것이다. 즉,

\[
(\text{AT}) \quad \Pr(A \rightarrow C) = \Pr(C | A)
\]

\textsuperscript{7} Stalnaker (2005), p. 11.  
\textsuperscript{8}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Stalnaker (1975)에 붙은 부록\textit{(appendix)}를 보라.
그런데 루이스는 아담스 논제를 만족하는 그러한 명제는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즉 직설법적 조건문이 전리조건을 가저서 그 직설법적 조건문의 주장경도(또는 수용경도)가 그 직설법적 조건문의 참일 므음의 정도와 동일하다면, 아담스 논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9) 이로부터 최원애와 노호진은 직설법적 조건문이 전리조건을 갖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0) 그리고 아담스주의를 거부하는 선우환도 직설법적 조건문이 아담스 논제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을 비판하고, 아담스 논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은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받아들일 만한 이론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11)

그런데 이와 같은 비판을 논증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 \; P(X) = P(C|A) \text{를 만족하는 } X \text{와 같은 명제는 없다.} \\
ii) \text{아담스 논제를 거부할 수 없다.} \\
iii) \text{그리므로 } (A \rightarrow C) \text{는 전리조건을 갖지 않는다.} \]

그러나 이 논증을 비판하는 곳은 다양하다. 선우환처럼 이 논증의 타당성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즉 아담스 논제를 받아들여도, 루이스 증명의 귀결을 \((A \rightarrow C)\)가 전리조건을 갖지만, \((A \rightarrow C)\)의 수용조건이 \((A \rightarrow C)\)의 전리조건에 의해서 완전하게 결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곳은 루이스의 증명의 원래의 의도 그대로 아담스 논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선우환은 아담스 논제가 갖는 강한 직관 때문에 거부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최원애도 아담스 논제를 거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

다. 그런 까닭에 최원배는 루이스의 증명이 갖는 절차적 합술 중 하나를 조건문은 건리 갖을 갖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최원배의 주장 그대로 조건문의 확률은 조건부 확률일 수 없으므로 아담스 논제를 거부할 수 있고, 아담스 논제가 갖는 강한 직관은 조건부 확률에 대한 최원배의 설명에 의해서 그 이유를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원배는 조건문의 확률이 조건부 확률일 수 없는 이유를 조건부 확률의 특성에서 찾으면서 그 특성이 드러나는 증명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그 증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조건부 확률의 높고 낮음은 전건이나 전건의 부정의 확률의 높고 낮음과 별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전건의 확률이 높거나 낮아도 조건부 확률은 낮거나 높을 수 있다. (⋯) 조건부 확률에 서는 전건이 거짓이 되는 경우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말해준다.12)

즉 직설법적 조건문(A→C)에 대한 강한 건리조건에 따르면, 조건문의 전건(A)이 거짓인 경우에는 조건문의 전리값은 어느 하나로 고정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전건이 참인 경우 후건이 참인가 거짓인가에 따라 조건문의 전리값이 결정된다. 그런데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건부 확률의 확률값도 결국 조건적 정보(A)의 확률의 높고 낮음은 조건부 확률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직설법적 조건문은 오직 그것의 전건이 참일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간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유용하고, 수용가능하며, 주장할 가치가 있다는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중요한 직관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담스 논제가 거부하기 힘든, 직관적으로 호소력이 있는 논제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의

12) 최원배 (2005), pp. 78-79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담스 논제는 그 논제에 부합하는 명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루이스의 증명에 의해서 결국 생명이 다쳤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 아담스 논제에 대한 루이스의 증명의 귀결에 의존하여 직설 법적 조건문이 진리조건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반론이 에딩턴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에딩턴은 직설법적 조건문이 갖는 다음 두 가지 수성이 주목한다.

a) \((A \lor B)\)에 대한 최소한의 확실성이 \((-A \rightarrow B)\)에 대한 확실성을 위해서 충분하다.

b) \(-A\)를 믿으면서 동시에 \((A \rightarrow B)\)를 믿지 않는 것은 반드시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13}\)

에딩턴에 따르면, 직설법적 조건문이 진리함수적 조건문을 가지면 a)는 만족하지만 b)를 만족하지 못하고, 스톤네이커처럼 직설법적 조건문이 강한 진리조건을 갖는다면 b)는 만족하지만 a)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며 답변한 것이다. a)는 긴밀한 조건문이 직설법적 조건문을 함축한다는 이행 원리가 성립한다는 뜻인데, 스톤네이커의 의미론은 이행원리가 보편적으로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스톤네이커는 a)를 거부한다. 물론 스톤네이커의 강한 진리조건의 의미론은 그림에 의도 이행원리가 성립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있음을 선택함수에 대한 화론적 제한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요컨대 스톤네이커의 의미론은 a)가 보편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a)와 같은 추론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 이론이다.

4. 기바드 현상

스톨네이처의 의미론에 대하여 심각한 반론으로 여겨져 온 것 중 하나가 기바드 현상이다. 기바드(A. Gibbard)가 제시한 상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4)

영이와 선이가 포커를 하고 있는데, 선이가 최대한의 배팅을 했고 이제 영이가 몰을 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 석이가 선이의 카드를 혹처보았고 그것이 매우 좋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석이는 영에게 신호를 통해서 선이의 카드가 무엇인지지를 알려주었다. 또한 혼이는 영이와 선이의 카드를 모두 혹처보았는데, 영의 카드가 선의 카드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다. 그 때 이상한 감새를 차린 선이가 석이와 혼이를 방에서 내보냈다. 석이와 혼이는 영이가 자신이 질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방에서 나온 석이와 혼이는 각각 다음과 같이 쓴 폭지를 친이에게 건넸다.

석: 영이가 죽었다면, 영이는 이것을 것이다. (Y→W)
혼: 영이가 죽었다면, 영이는 이것을 것이다. (Y→W)

석이는 석이가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이 선이의 카드를 영에게 알려주었고, 영이는 자신이 질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결코 몰하지 않을 것임을 석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석이의 조건적 진술은 석이의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 있는 주장이다. 그리고 혼이는 영이와 선이의 카드를 모두 보았는데 선이의 카드가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만

한 주장을 하고 있는 센이다.

가비드 헨상을 이용해서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은 비판하는 한 가지로, 천자는 비록 이런 죽지른 누가 자신에게 건네주었는지에 모른다고 해도 천자는 주어진 정보로부터 영이가 포기했을 것이라고 정당하게 추론할 수 있지만,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으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에 따르면, 섬이의 주장이 참인 경우는 선택합수가 Y가 참인 현실 세계와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 W가 참인 가능세계를 함수값으로 산출하는 경우이고, 흔히의 주장이 참인 경우는 그러한 세계에서 W가 거짓인 가능세계를 함수값으로 산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천자는 섬이의 주장(Y → W)과 흔히의 주장(Y → ~W) 중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고, 이 두 주장은 모두 수용하여 ~Y를 추론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다시 말해서 스톨네이커에 따르면, 그 두 주장은 서로 양립불가능한 것이고, 그 중 하나를 참으로 만드는 근거는 다른 하나를 거짓으로 만드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천지는 섬이의 주장 근거나 흔히의 주장 근거 중 하나를 거부해야 하고, 따라서 이로부터 영이가 포기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없다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은 이러한 추론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일까?

필자는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으로도 천지는 영이가 포기했을 것을 이라는 것을 정당하게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톨네이커에 따르면, 섬이의 주장과 흔히의 주장은 각각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모두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을 받아들여도 영이가 죽지 않고 포기했을 것입니까 천자가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천자는 “영이가 신의 카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과 “영이가 자신이 잘 카드하는 것을 안하면 포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
다. 우선 영이가 절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영이는 선이의 카드를 알고 있으므로 자신이 절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따라서 영이는 물론하고 포기할 것이다. 이제 영이가 이길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영이는 선이의 카드를 알고 있으므로 영이는 자신이 이길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Y→W)는 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석이 또는 훈이 중 한 사람이 천이에게 (Y→W)라는 쪽지를 주었다. 이 조건문의 맥락 와존성을 살펴보면서, 누가 그 쪽지를 전달했었고 그 조건문의 의미가 무엇인지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만약 영이가 이길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Y→W)의 쪽지를 전달 준 사람은 훈이일 수 없다. 훈이는 두 사람의 카드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이가 이길 카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 (Y→W)라는 쪽지를 전달 준 사람은 석이일 것이다. 그런데 석이는 영이가 양쪽 카드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석이도 (Y→W)라는 쪽지를 전달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영이가 이길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영이의 카드는 선이의 카드보다 낮은 카드이고 따라서 영이는 천하지 않고 포기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을 받아들이다고 해도 이러한 추론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으로는 천이가 주어진 정보로부터 "영이는 포기했다"는 정당한 추론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기바드 현상이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에 대한 중요한 비판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위와 같은 천이의 추론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에 따르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석이나 훈이의 주장 중에 하나는 거짓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톨네이커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 되는 조건적 무모순의 원리(Principle of conditional non-contradiction)를 받아들인다.

\[
(CNC) \rightarrow ((A \rightarrow C) \& (A \rightarrow \neg C))
\]
스톨네이커는 이 원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석이의 조건문 (Y→W)과 흰이의 조건문 (Y→W)은 동시에 참일 수 없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이유로 기바드는 석이와 흰이의 진술이 명제를 표현하고 있다면 둘 모두 참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텐데, 이는 불가능하므로, 직설법적 조건문은 참이거나 거짓일 수 없고 따라서 명제를 표현하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그 진술을 하는 사람의 인식적 상태를 나타내는 조건적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예정론도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직설법적 조건문은 진리값을 갖지 않고 명제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기바드의 사례에서 석이 문장과 흰이 문장 둘 중] 하나는 참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실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판단 두가지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들의 판단은 동시에 참일 수도 있고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으며, 어느 하나만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에 참과 거짓이라는 말은 평가의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15}\)

그렇다면 직설법적 조건문이 명제를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스톨네이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반 루이(R. van Rooy)는 카프란(D. Kaplan)의 이차원적 의미론 (two dimensional semantics)을 받아들여서 직설법적 조건문이 명제를 표현한다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기바드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6}\) 문제에 의해서 표현되는 명제는 막락의 준적이라는 이차원적 의미론을 받아들이면, 조건문의 경우 관련된

\(^{16}\) van Rooy (1999), pp. 5-7.
택한 변수는 유사한 가능세계를 선택하는 선택함수이다. 만약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선택함수가 다르다면, 한 사람은 (A→C)가 참인 명제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은 거짓인 명제를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반의 현상에서 선택함수가 가능세계를 선택함에 있어서 유사성을 결정하는 요소를 영어와 선이가 가지고 있는 카드라고 하면 (Y→W)는 거짓이고, 영어가 게임에서 콜하라는 상황에 의해서 선택된 가능세계의 유사성이 결정된다면 (Y→W)는 참이 된다. 다시 말해서 영어와 선이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내용에 의해서 유사성을 결정하는 선택함수를 $g_b$라고 하고 영어의 상황에 의해서 유사성이 결정되는 선택함수를 $g_l$라고 하면, $g_b(Y, 0)$에서 W는 거짓이지만, $g_l(Y, 0)$에서 W는 참이 된다. 따라서 $g_b$에서 (Y→W)는 거짓이지만, $g_l$에서 (Y→W)는 참이다. 즉 석이가 (Y→W)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선택함수가 $g_i$이기 때문이고, 혼이가 (Y→W)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선택함수가 $g_b$이기 때문이 다.

스톨네이커도 석이와 혼이의 조건문이 모두 참이라고 주장한다. 석이와 혼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부분적으로 그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 상황은 두 사람의 믿음과 영리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석이는 영어가 점 카드를 가지고 있었으면 게임을 포기하는 상황을 배제할 입장에 있지 않고, 실제로 석이는 그러한 상황을 배제하지 않지만, “영어가 콜됐다면 이길 것이다”고 주장할 입장에 있고, 반대로 혼이는 “영어가 콜됐다면 이길 것이다”고 주장할 입장에 있는데, 문제는 두 사람의 주장 모두 자신이 가진 정보로부터 지지되는 근거 있는 주장이라는 점이다. 스톨네이커는 이에 대해서 석이의 조건문 해석과 관련된 선택함수와 혼이의 조건문을 해석할 때의 선택함수는 다르다고 말한다. 그는 “조건문의 참과 주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각의 선택함수는 그것을
이 공유한다고 가정된 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믿음이나 지식에 의해서도 제한되어야 한다"(17)고 말한다. 두 사람이 진술한 조건문은 그들의 믿음 체계에 맥락 의존적(context-dependent on the speaker's belief system)이기 때문에 모두 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맥락 의존적인 표현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화자에 의해서 청자도 사용가능한 것이라고 전제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화자의 개인적인 믿음이나 지식은 그것이 공통의 근거가 아닌 경우에는 표현된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조건명제를 해석하기 위한 선택함수가 화자의 개인적인 믿음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전제와, 관련된 선택함수는 공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 사이에는 아무런 충돌도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선택함수가 화자의 개인적인 믿음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전제는 화자가 말하는 조건문은 다른 사람이 같은 조건문으로 같은 맥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함축하지만, 그것이 화자의 조건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공적으로 사용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자가 화자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청자 자신도 맥락적임에서 주어진 가능세계로부터 선택된 세계는 화자가 그 가능세계에서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것을 알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공통의 근거가 된다.(18)

---

(18) 이 논문의 심사자 중 한 분은 각 조건문은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하는 가능 세계가 다르다고 하며, 즉 하나의 추론을 통해 조건문을 가진 조건문이 여러 개 나올 때 함께 가능세계를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잡아도 된다면, 추론 의 타당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하였다. 여기에 다음 같은 추론의 타당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A→B, A→C / A→(B∨C)
스토니너가 모든 조건문의 해석에서 고려해야 할 가능세계가 다르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기반의 현상과 같은 특이한 경우에, 즉 (A→C)와
기바드의 문제가 제기된 이후, 에정문이나 베넷 등도 그와 유사한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에정문은 제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마피아 보스와 그의 부하, A, B, C가 방에 함께 있는데, FBI 요원 X가 그들을 틀보고 있다. 그런데 X는 A가 방에서 나간 후에 보수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한 사실을 관찰했다. 한편 또 다른 FBI 요원 Y가 그들을 틀보고 있는데, 그는 B가 방에서 나간 후에 보수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로부터 X는 ‘C가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B가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던 한편, Y는 ‘C가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A가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19) 그리고 베넷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어떤 문에 1차 문문(top gate)이 있고 그로부터 수도는 둘로 나뉘고, 각각의 수로에는 하나씩의 문문, 동쪽 문문과 서쪽 문문이 있다. 그런데 문 조절 시스템은 세 개의 문문이 모두 열릴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X는 동쪽 문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했고, Y는 서쪽 문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부터 X는 ‘1차 문문이 열렸다면 물은 동쪽 수로로 흐른다’고 주장하고, Y는 ‘1차 문문이 열리었다면, 물은 서쪽 수로로 흐른다’고 주장한다.” 20)

에정문이나 베넷의 사례는 기바드의 사례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기바드의 사례보다 설명하기 더 쉽다. 두 사례는 정확히 동일하므로 에정문의 사례만 생각해보자. X와 Y의 공동의 지식은 보수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은 A, B, C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X는 A가 보수의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A→C)가 모두 참인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 함수가 다룰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심사자가 지적한 위 논증은 스플네이커도 당연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토대 역할 B와 A를 위해서 선출하는 선택함수 f(A, B)에서 B와 C가 창이면 동일한 선택함수에서 (BVC)도 참일 것이기 때문이다. 21)

있고, \(Y\)는 \(B\)가 보수의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즉 \(X\)와 \(Y\)는 서로 다른 인식 상태에 있다고, 따라서 그들은 서로 다른 조건적 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X\)가 한 조건적 전술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짜는 \(Y\)가 \(Y\)가 조건적 전술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짜는 \(Y\)'s 선택함수는 다르다. 즉 \(X\)의 선택함수, \(f_1(-C, \beta)\)는 \(C\)가 거짓인 \(\beta\)와 가장 유사한 세계인데, 이 세계에서는 \(A\)가 참이 아니고 \(B\)가 참인 반면, \(Y\)의 선택함수의 결과 얻어진 가능세계에서는 반대로 \(B\)가 참이 아니고 \(A\)가 참인 세계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X\)의 선택함수는 \(f_1(-C, \beta)\)이고, \(Y\)의 선택함수는 \(f_1(-C, \beta)\)로 다르고 그것은 바로 \(X\)와 \(Y\)의 인식 상태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X\)와 \(Y\)가 서로 다른 믿음 상태에 있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조건적 전술을 하게 하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믿음 내용이 궁극적으로 나의 추론을 위한 사용가능한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X\)와 \(Y\)는 쉽게 명령을 받은 사람은 \(C\)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직설법적 조건문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막강 의존적임을 인정해야 한다. 화용론적 제한은 공적으로 사용가능한 정보인 공통의 근거와 조건문의 해석 사이의 관계에만 관련된다. 그러나 기바드 현실은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해서 진리조건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문은 화자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믿음, 즉 공적으로 사용가능하지 않은 정보에도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한 화자 상대성은 암묵적으로 직설법적 조건문이 화자의 인식 상태에 관한 것임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서로 상대방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보이는 화자와 청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음을 뜻하지 않고, 명백히 진리에 관한 표준적이지 않은 개념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말한다.21)
요컨대 직설법적 조건문은 화자의 인식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나는 이런 조건문을 주장할 입장이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조건문을 발화할 때 그 조건문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스플레이커는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주장과 수행조건을 구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4. 남은 문제들

지금까지 설명한 스플레이커의 의미론의 귀결은 직설법적 조건문으로 표현되는 명제는 화자의 믿음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조건문이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발화할 경우 다른 명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위에 서는 신이가 “나는 수원에 산다”라고 말함으로써 표현되는 명제와 서운에 서는 벽이가 동일한 문장을 발화함으로써 표현하는 명제는 서로 다른 것처럼, 직설법적 조건문은 발화자의 믿음 상태가 다르다면 다른 명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직설법적 조건문을 색인어(indexicals)를 포함하는 문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22)

그런데 기바트 현상은 색인어를 포함하는 문장에서 색인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22) 이런 입장은 명시적으로 취하는 대표적인 철학자인 기바트 이외에도 반 루이, 산토스(P. Santos) 등이 있다. 특히 산토스는 조건문의 역량 의존성을 색인어를 포함하는 문장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여러 비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담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Santos (2008)를 참고할 것.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설명을 밝히지 않은 채로 나에게 메신저로 "나 지금 잘 지내고 있어"라는 쪽지를 보내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그 쪽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서 기바드의 현상은 어떤 문장을 해석과 관련된 맥락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위의 쪽지의 예도 보낸 문장이 어떤 명제를 표현하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쪽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은 지금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쪽지는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맥락에 따라 다른 명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스토레이커는 "[기바드 사례는] 정보의 합동(pooling of information)의 사례이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것을 알고 있지만,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 서, 그것은 조건문이 개인적인 믿음의 상태에 의존하여 주장되거나 수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조건문에 대한 의미론을 구성하는 화용론적 원리를 개인의 믿음 상태에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이론이 해결해야 할 남은 문제라고 말한다.

실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범인은 X, Y, Z 중 한 사람이고, 그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A는 실인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Y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B는 Z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A도 그 증거를 공유한다. 즉 Z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A와 B가 공통으로 갖는 지식이다. 이로부터 A는 개인적으므로 X가 범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반면에 B는 Z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 X가 범인이 아니라는 잘못된 증거를 가

지고 있다. 그래서 B는 범인은 Y라고 결론을 내린다. A와 B가 자
신들이 범인이라고 믿은 사람을 상대로에게 말하지만 서로를 설득
하지 못한다. 특히 A는 X가 범인이라는 것보다 Y가 범인이 아니
라는 것을 훨씬 더 강하게 믿는다. 그래서 X가 범인이 아니라고
한다는, 그는 Z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다.

이 경우 B는 “우리가 누가 범인이라고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
지 못하고 있지만, X 또는 Y가 범인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공통의 지식이다. 따라서 당신이 X가 범인이라고
말지만, 당신은 ‘X가 범인이 아니라면 Y가 범인이다’는 데에 동의
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A는 추론을 위한 공통의 근거
에는 동의하지만, B가 주장한 직접법적 조건문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A가 B의 조건적 주장, (-X→Y)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직접법적
조건문에 대한 스텔레이커의 전리조건적 설명에서 제시된 화용론적
원리에 대한 반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 예에 공통의
근거에 P가 부가 될 경우 P가 Q를 함축한다면, 우리는 P라는 조
건 하에서 Q를 받아들이야 한다는 스텔레이커의 조건적 주장에 대
한 설명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위의 설명에 있는 경
우, A가 B의 조건문을 수용한다면, A는 분명히 조건적 지식에 대
한 규범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믿음과 충돌하여 주장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수용하는 셈이 된다. 다시 말해서 A와 B가 가
진 공통의 지식에 의하면, f(-X, β)에서는 Y가 참이어야 할 타인
데, fA(-X, β)에서 Y가 아니라 Z가 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스텔레이커가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는 지식이 모두 추론을 위한 공통의 근거라는 전체에 대해서 의
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5)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통의 지식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대회에서 여전히 가능한 선택지(live option)일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설명 사건의 경우, X가 범인이라는 것이 논쟁적이라는 것이 분명할 때, 그래서 X가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선택가능한 맥락이라고 한다면, A는 Z가 범인임 가능성을 다시 열어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즉 A는 "나는 X가 범인이라고 확신하지만, 만약 X가 범인이 아니라면, 범인이 Z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것이다. 요컨대 맥락 집합은, 그 맥락집합에 속하는 가능세계들과 양립가능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도,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조건적 지식과 양립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그렇게 선택할수에 대한 화용론적 제한을 확장하면, 살인사건의 경우도 스폰네키의 의미론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26)

끝으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스폰네이커의 맥락의존적 해석에 대해서 제기되는 비판을 살펴보자. 스폰네이커의 의미론은 직설법적 조건문이 화자의 믿음에 따라 서로 다른 명제를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을 수 있다.27) 첫째, X와 Y가 같은 직설법적 조건문 (A→B)를 발화할 경우 그들은 쉽게 서로가 참인 주장을 한다고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다른 믿음체계로부터 그러한 주장을 발화할 경우 스폰네이커는 그들의 동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X와 Y가 서로 다른 믿음체계로부터 (A→B)를 발화했을 경우, 그들은 서로 다른 명제를 표현하고 있는 셈이고, 그 중 어떤 어떤 명제를 발화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6) 스폰네이커가 제시한 살인 사례는 예정론과 페넷이 기바드 사례의 변형으로 제시한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27) 이 비판은 2009년 7월 31일 논리학회 발표에서 노호진 선생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이다.
이 비판은 궁극적으로 스털네이커의 의미론에 따르면 선택함수가 개인적인 믿음에 의해 제한되므로 직설법적 조건문의 의미는 그 조건문을 발하는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다른 명제를 표현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스털네이커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비록 선택함수가 화자의 개인적인 믿음에 의해서 제한된다고 해도 그 조건문을 청자가 공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8 직설법적 조건문의 의미가 발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믿음에 의해서 다른 명제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발화자와 청자가 동의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5. 맺는 말

스털네이커의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의미론은 그 조건문에 대해

28) 이 문제를 다시 까바드 현상을 통해서 생각해보자, \( a, \beta, \gamma \) 세 개의 가능세계를 가정하자. \( a \)는 환자가 영아가 질 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아는 세계, 즉 현실세계이고, \( \beta \)는 환자가 영아가 이질 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아는 가능세계, \( \gamma \)는 환자가 영아가 이질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점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가능세계라고 하자. 환자의 조건적 진술을 해석하는 데 관련된 선택함수는 \( a \)라고 하자. 세 개의 세계는 각각 청이의 지식과 양립가능하고, 환자의 죽이가 청에게 전달되는 대략과도 양립가능하다. 그러나 청이가 \( a \)가 현실세계라는 것을 모르고 환이도 그것을 가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청이는 \( \delta(Y, a) \)는 \( W \)가 가짓인 가능세계이고 \( \delta(Y, \beta) \)는 \( W \)가 참여하는 가능세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바로 공동의 근거이다. 청이가 환자의 죽이의 목격을 전념받을 때, 청이는 그것을 이해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 \beta \)를 배제한다. 결국 청이는 \( Y \)와 \( W \)가 동시에 참인 가능세계를 배제한다. 또 \( Y \)에서는 환이는 \( (Y\&W) \)이나 \((Y\&\neg W)\)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환자의 조건적 진술 \( (Y\rightarrow W) \)이 참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청이는 여전히 환이가 \( Y \)를 현실세계라고 여긴다면 그러한 조건적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근거에서 \( Y \)가 현실세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 다.
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여러 가지 직관에 부합하는 이론이 라는 장점만 갖는다. 또한 그 의미론은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은 절로직 조건문의 진리조건보다 강하기 때문에 직설법적 조건문의 참은 절로직 조건문의 참을 보장하지만, 즉 논란 없는 원리는 성립하지만, 그 논론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에 따르면, 이행 원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행 원리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선택함수에 대한 화용론적 제한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스텔네이커의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의미론은 지나치게 막락 의존적인 해석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즉 다른 인식적 상태에 있는 두 사람은 각각 (A→C)와 (A→¬C)를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점이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바드의 현상은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갖는 성질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가바드의 현상이 보여주는 것은, 직설법적 조건문이 그 성질상 막락의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시어를 포함하는 문장이 막락의존적이지만 명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직설법적 조건문은 막락의존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문장이지만, 그것이 명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직설법적 조건문은 명제를 표현하는 문장이며, 그 명제의 진리값은 선택함수라는 막락에 의존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스톨네이커의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의미론의 핵심이고, 직설법적 조건문은 막락의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직설법적 조건문의 성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노호진(2006), "조건문에 관한 성향적 분석", 『논리연구』 vol. 9, no. 2, pp. 31-57.
선우현(2008), "적설법적 조건문은 진리조건을 가지지 않는가?", 『철학적 분석』 vol. 18, pp. 1-35.
이범덕(2008), "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설명", 『철학적 분석』 vol. 17, pp. 135-164.
최원배(2005), "조건부 확률과 조건문의 확률", 『논리연구』 vol. 8, no. 2, pp. 59-84.


기초교육대학

Email: song1959@hanmail.net; hasong@ajou.ac.kr
Stalnaker's Theory of Indicative Conditionals

Hasuk Song

This paper defends Stalnaker's theory of indicative conditionals. His theory consists of selection functions and pragmatic constraints. The selection function takes a certain possible world (W) and a proposition (A) to yield a possible world that is similar to W and in which A is true. And the pragmatic constraints play a role to make selection functions apply just to indicative conditionals. According to Stalnaker, as indicative conditionals have strong truth-value, uncontested principle always holds but passage principle does not always hold. However, his theory can explain why passage principle sometimes holds by means of pragmatic constraints.

Also, this paper argues that Stalnaker's theory is the most acceptable one among others, by replying to criticisms suggested by Adamsians and the problem raised by Gibbard and other criticisms.